www.neuro.or.kr

대한신경과학회보

Newsletter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01
January
2009

2009. 1 • Vol. 79

회장 신년사

이사장 신년사

원로회원탐방
박충서 선생님

교실탐방
가천의대 신경과학교실

인물탐방
향설학술상 최광동 교수
명인학술상 김한준 교수

Hot issue
한방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조정훈 원장

각 위원회별 활동 및
2009년 통합학술대회 계획

지부동정

자학회동정

알림란

회원동정

대한신경과학회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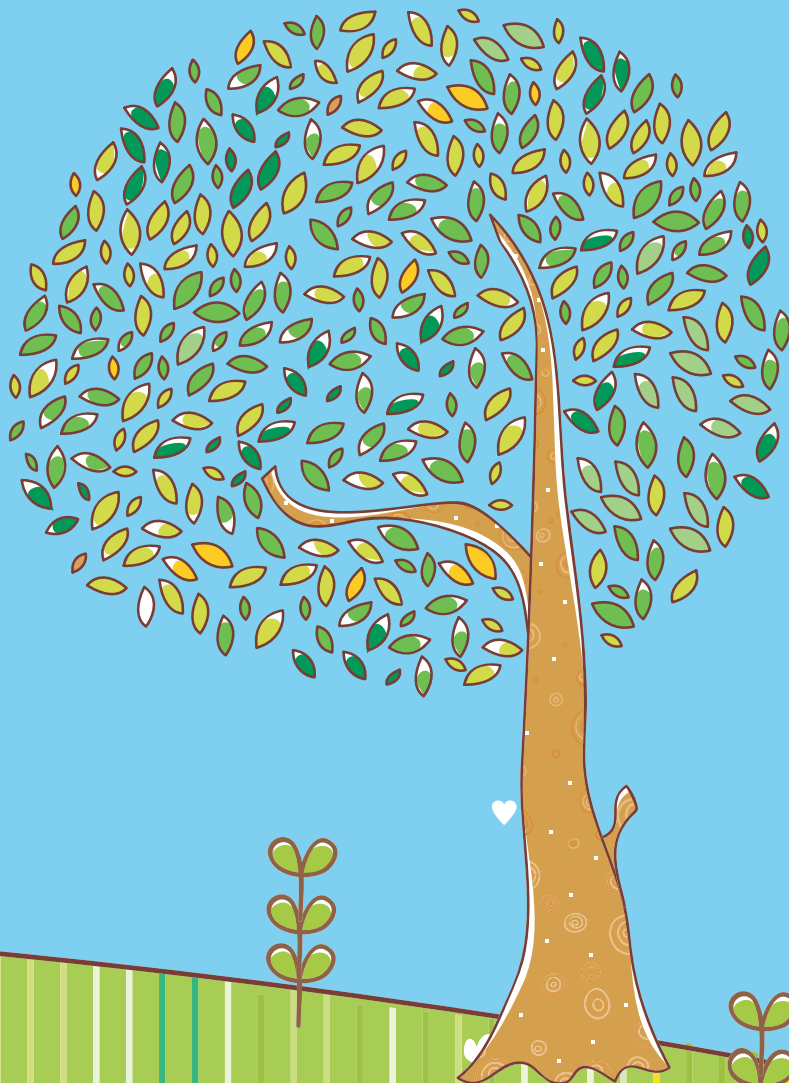
Newsletter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2009

+ 대한신경과학회 임원명단

회 장	이광호(성균관의대)
부회장	하정상(영남의대)
부회장	이창훈(이창훈신경내과의원)
이사장	이광우(서울의대)
부이사장	김주한(한양의대)
총무이사	박성호(서울의대)
보험이사	김영인(가톨릭의대)
재무이사	김지수(서울의대)
편집이사	허지회(연세의대)
홍보이사	박수철(연세의대)
고시이사	정진상(성균관의대)
학술이사	김승현(한양의대)
기획이사	전범석(서울의대)
수련이사	박기덕(이화의대)
정보이사	성기범(순천향의대)
법제이사	박건우(고려의대)
국제이사	한설희(건국의대)
무임소이사	김재우(동아의대)
무임소이사	조기현(전남의대)
무임소이사	김재문(충남의대)
무임소이사	안재훈(신구의원)
감 사	정대수(부산의대)
감 사	권오상(중앙의대)
용어위원장	이상암(울산의대)
노인의료위원장	서정규(경북의대)
간 사	조진환(서울의대)



대한신경과학회보

NO.79 2009.JANUARY

대한신경과학회 제27차 통합학술대회

Contents

회장 신년사 04
이 광 호 |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이사장 신년사 05
이 광 우 |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원로회원탐방 원로 회원을 찾아서 – 박충서 선생님 06

교실탐방 가천의대 신경과학교실 08

인물탐방
향설학술상 최 광 동 | 부산의대 신경과학교실 10
명인학술상 김 한 준 | 인제의대 신경과학교실 12

Hot issue 한방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14
조 정 훈 | 푸른솔신경과 원장

2009년도 통합학술대회 계획과 이모저모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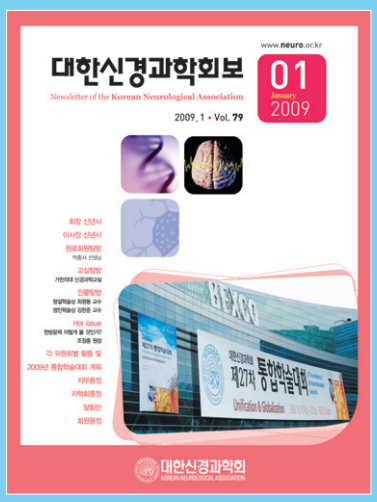
각 위원회별 활동 17

지부동정 20

자학회동정 22

알림란 25

회원동정 25



cover story :
BEXCO 학술대회장 전경

발행인 | 이 광 우
편집인 | 박 성 호
발행처 | 대한신경과학회
주 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1층 11호
전 화 | (02)737-6530 **팩 스** | (02)737-6531 **이메일** | kna@neuro.or.kr **홈페이지** | www.neuro.or.kr
디자인·인쇄 | 도서출판 씨아이알(02)2275-8603
발행일 | 2009. 1. 30.

신 년 사

존경하는 회원님께

이제 2009년 기축년 1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바삐 사느라고 자주 만나지 못한 가족 친지들과 구정 연휴 동안 소중한 시간을 즐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회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 덕분에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어 학회의 위상을 굳건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최근 예를 들자면 2008년 우리 영문학회지인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가 SCIE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및 전 세계와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첫 단계로 일본과의 교류를 시작하였고 2007년에는 신경학 교과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많은 학회에 참석하느라 회원님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춘·추계 매년 2회 학술대회를 2007년부터 1년에 한차례 학회를 열기로 바꿨습니다. 2008년에는 자학회 제도를 도입하였고 앞으로도 자학회 및 인접 학회와 긴밀히 협조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국내 경제 및 병원계에도 큰 영향을 주어 우리 신경과 회원들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개원의 선생님과 병원을 경영하시는 회원님들은 어려우시더라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회원님과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다시 한번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우리 학회는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역시 발전을 거듭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회원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이 광 호

기축년 새해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대한신경과학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2009년 기축년 새해를 맞아 여러 회원님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내에 만복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여는 세종로 타종 소리에 맞춰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 지가 며칠 지나지 않았으나 이미 새해라는 느낌이 어색하여, 새로운 업무개시 인사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2월이 지나면 신입 신경과 전공의는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며, 한 연차씩 진급하는 전공의는 좀 더 성숙해질 것이며, 신경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장원급제한 전문의들은 새로운 사회에 진출하여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대한신경과학회는 학회의 규모와 학술적인 면에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물론 현 집행진이 학회 업무를 맡으면서 수행하고자 하였던 바에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회원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연륜이 많은 시니어 선배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등 학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한걸음 전진하였다고 자평합니다. 학회는 신경과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중시하였으며 자학회와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명예회원, 시니어 회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유익한 좋은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며, 시니어 회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고시업무에 참여함으로써 신경과 전문의고시의 위상과 권위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연합회, 세계연맹 신경과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적 신경학계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의 행동반경을 가름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는 회원들의 모임으로 구성되고, 모임이 공고해짐으로써 단체는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신경과학회라는 단체도 회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다 모으고, 내적으로 더 공고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학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있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토론을 통해 귀결된 결론에 협력적으로 동의하고 하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형태가 옳습니다. 그런 경우 학회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인 회원의 권익옹호란 명제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머리에 맴도는 생각 중의 하나는 "우리 신경과 분야의 진료현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영역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여기는 신경과 전문 진료의 폭은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인접 분야의 전문의들은 의료자율성을 내세워 신경과 진료영역을 기웃거리고, 비의료인들은 좋은(?) 유창한 말을 하면서 신경과적 진료를 무계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현실을 무겁게 인지하면서 좁게는 신경과인을 위하여, 넓게는 대한신경과학회를 위하여 맡은 바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이견을 외부에 표출함으로써 진료 현실이 점차 나쁜 쪽으로 향하는 타 학회의 현실을 우리 모두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뉴스를 각종 매스컴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 난국 등으로 흐트러진 국민의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예스 위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을 맞아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위기도 풀리고, 학회 회원들의 진료경제도 많이 나아지고, "하나가 되자" 하는 학회의 모토를 위해 진일보 전진하는 힘찬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이 광 우

원로 회원을 찾아서 – 박충서 선생님

지난 2008년 11월 26일 꽤 쌀쌀한 저녁 무렵 신경과학회 부회장인 김주한교수, 총무이사인 박성호교수, 하정상교수, 정재면교수가 서울역의 커피숍에 모였다.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신경과학 분야에서 1950년대 말 국립의료원에서 신경과 환자 진료를 시작하셨고, 1970년대에는 신경과학회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던 박충서선생님을 뵈러 가기 위해서였다. 만남의 장소인 부천의 한 일식집으로 가기 위해 오른 1호선 인천행 전철은 창 밖 황혼의 노을 속으로 덜컹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예약한 장소에서 미리 자리를 잡고 박충서선생님께서 무슨 음식을 좋아하실지 이야기하던 중 약속시간에 딱 맞추어 등장하신 선생님, 우리가 상상하는 백발에 수염이 멋진 단정한 노신사 바로 그 모습이셨다.

참석 박충서 선생님, 김주한 부이사장, 박성호 총무이사, 하정상 부회장
정리 및 사진 정재면 교수

박성호)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총무이사인 제가 대한신경과학회 회보를 만드는데, 여기 있는 김주한 교수의 아이디어로 원로 선생님들의 근황을 싣고자 이렇게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의 연륜이 더해 가면서 더욱 더 역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회 창립 때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이미 돌아가신 서석조, 명호진, 김상욱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제1세대의 말씀과 숭고한 첫 마음을 정리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이런 자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집안 사정으로 요즘 부천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둘째 아들과 함께 있어요. 이런 저런 건강문제가 좀 있고 또 목소리도 퇴화되어서인지 한번은 초청강연을 하는데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옛말에 "늙으면 빨리 가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실감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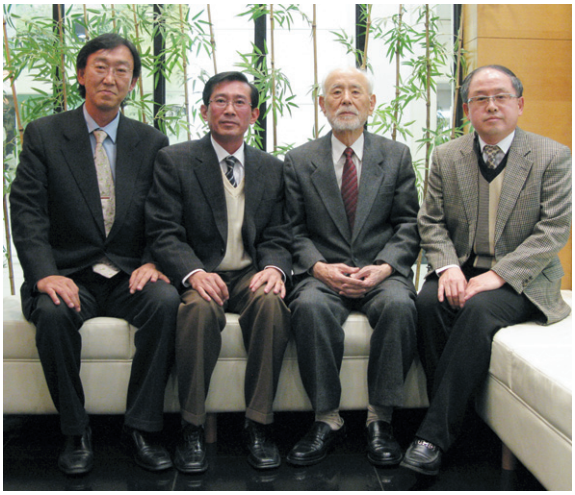
선생님께서는 6.25동란 중에 학교를 다니셨지요? 공부하시던 때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전쟁이 터지자 대구에서는 의과대학 외에는 갈만한 대학이 없었어요. 대학다운 대학이라고는 의과대학밖에 없었지요. 한 반에 학생 2-3명밖에는 없었어요. 겨울에 히터는 물론 없었고 유리창도 깨져있어 창호지 바르고 공부했습니다. 고생고생 후에 졸업했지요. 졸업한 후에는 유학갈 생각으로 신청서를 냈더니 정부에서 누가 말을 했는지 여비를 대줘서 워싱턴 북부의 Baltimore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북대에서는 처음으로 갔죠. 1년 동안 메릴랜드주립대학에서 내과 레지던트를 한 후에 존스 홉킨스로 옮겼지요. 1년 동안 약리학, 해부학, 생화학을 서너 번 시험을 쳤는데 1등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1등을 해서 주위에서 날 주목하기 시작했지요. 하숙하던 집에서 우연히 내 일기를 본 후에 공산주의자로 몰려 FBI의 감시를 받다가 귀국하도록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국하신 후에는 바로 국립의료원으로 가셨던 건가요?

귀국하여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 전주 예수병원에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 숙직실에서 지내라고 하더군요. 내려간 날 하룻밤 자고나니 몸이 이상해. 연탄가스중독이 되었던 거예요. 그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어 고생했습니다. 마비가 풀리는 데 1년 쯤 걸렸고 그 후에 지팡이 짚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국립의료원은 58년 11월에 개원했어요. 그 당시 원장이 "신경과는 우리나라에 처음이고 서양사람이 교수를 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길래 좋다고 했습니다. 당시 국내의 신경과는 국립의료원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해서 신경과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 때 신경과 담당선생이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출신이었는데 특히 다발경화증에 관해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의료장비나 약품도 모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풍부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다발경화증과 ALS 환자들도 많이 진단하고 치료했지요. 아마 그 당시 발표한 ALS와 MS 논문은 우리나라 최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와 관련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70년대 초 국립의료원을 그만두고 한양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양대에 가서 보니까 신경과 환자들이 모두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더군요.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접수하는 데 가서 "너희들 신경과가 뭔지 아느냐?" 했지요. 그곳 사람들을 교육하고 환자들을 신경과로 보내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대중 홍보도 필요하겠다 싶어 당시 알고 지내던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조선일보에 컬럼을 쓰게 해달라고 해서 매일 한 달 반 동안 썼습니다. 이때가 1974년도였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대한의학협회에 신경과학회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성사되지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80년대 초 김기환, 서석조 교수가 발의하고 메리놀병원 김상욱 선생을 회장으로 해서 대한신경과학회 설립에 관한 것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정신과에서 신경과학회를 취소하라고 난리였죠.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전화가 오고 보사부 과장, 국장, 차관도 만나 주지 않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경과가 왜 그리 필요한지 이유를 대라고 해서 부랴부랴 자료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성호) 83년에 영남대로 가셔서 92년 정년퇴임까지 선생님께서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이사장도 하셨지요. 대한신경과학회는 82년 8월 창립하여 83년에 레지던트 수련이 시작되었고, 신경과와 정신과가 완전히 갈라진 그 다음 해에 10명, 15명 등등 조금씩 늘어서 현재는 신경과 전문의 숫자가 1천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영남대학교병원에 가신 것이 83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정상 교수를 문하생 1기로 뽑으셨지요?

하정상) 그 당시 3년제였고, 나중에 4년제로 전공의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박충서선생님은 약속시간 안 지키는 것을 제일 싫어하셨지요. 아침 회진시간에 늦고 해서 당시 시말서를 두 번 썼습니다. 제가 레지던트를 84년도에 시작할 때 변영주선생님이 내과 전문의를 하고 우리병원 교수로 왔습니다. 제가 1년차 때 변영주 선생님 전임강사로 세 사람이 하다가 그 때 학회 규정이 바뀌면서 레지던트 안하면 시험도 못 친다고 하여 변영주 선생님이 전임강사를 그만두고 2년차로 편입해서, 저와 정식 시험을 함께 쳤습니다. 그 당시 김범생 선생님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전문의시험 같이 치고, 그렇게 해서 변영주 선생님과 함께 모두 13~14명이 함께 전문의시험을 쳤습니다.

인터뷰 동안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학들에게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우리 신경과 의사들은 지식과 에너지가 넘칩니다. 앞으로 생명공학에 더욱 노력하여 줄기세포와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파킨슨병, 치매와 같은 신경질환을 치료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주한) 지난 5월에 일본신경과학회에 갔습니다. 회장 초청 만찬이 있었는데, 3-400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였습니다. 특별한 인상을 받은 것은 학회 이사장이 제일 앞에 못 앉고 둘째 줄에 앉더군요. 원로선생님들께서 제일 앞 줄에 앉아 2-3분씩 스피치를 하는데 80이 넘은 신경병리학자 히라노박사도 있더군요. 정년퇴임하신 원로선생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자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박성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 학회 때 이사장 초청 만찬에 모신다면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가천의대 (길병원)

2009년 1월호부터 교실탐방을 새로이 마련하여 전국 대학병원의 신경과학교실을 탐방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교실은 가천의대(길병원) 신경과학교실입니다.

1. 가천의대 신경과학교실의 역사

가천의대 신경과학교실은 1991년 신동진 교수가 과장 겸 주임교수로 부임하면서 신경과가 독립된 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회에 걸쳐 총 10명의 전문의를 배출하여 교육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모든 의국원 및 졸업생은 각자의 위치에서 신경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가천의대 신경과 구성

가천의대 신경과학교실은 5명의 교수와 연차별 2명의 전공의(총 8명) 및 2명의 전문 간호사, 1명의 임상 코디네이터, 6명의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의 교수는 전공 분야에 따라서 – 신동진(두통, 뇌졸중, 간질), 박현미(두통, 간질), 이영배(말초신경, 근육질환, 뇌졸중), 박기형(치매, 수면), 성영희(파킨슨, 이상운동) – 외래 진료와 각각의 clinic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의들과 함께 입원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 내에 신경학검사실, 신경심리검사실, 기억인지기능검사실, 수면다원검사실과 같은 여러 검사실을 운영하여 높은 수준의 진료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3. 가천의대 신경과학교실의 자랑 – 빠른 성장

본 신경과는 1991년 처음 분리된 이후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2008년도에는 연간 5만여 명의 외래환자와 2천여 명의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넓어 보이던 의국도 이제는 많은 의국원으로 좁게 느껴지게 되었고 의국 단합대회때는 대규모 가족이 될 정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4. 가천의대 신경과학교실의 자랑 – 탄탄한 교육 과정

타 대학병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각종 conference들을 진행하고 특히 간질, 운동질환, 수면과 치매에 대한 lab meeting을 통해 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소와 연계된 연구는 연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며 향후 의국을 마치고 나가도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을 함양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희 의국의 또 하나의 자랑은 교환 학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한한 외국 학생(독일,일본,중국)들에게 강의와 실습교육을 통해 외국인과 자주 접하여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국제화의 감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공의 과정 중 석, 박사과정도 함께 수행할 수 있어 연구와 교육 능력을 갖춘 유능한 신경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5. 가천의대 신경과학교실의 자랑 – 우수한 연구환경

이장희교수님이 이끄는 뇌과학 연구소와 연계하여 활발한 기초 및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7 Tesler MRI를 비롯하여 여러 functional imaging 기술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뛰어난 연구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소와 연계된 연구 모임을 비롯하여 매년 경인지역 신경과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가천의대 신경과학교실의 자랑 – 화목한 의국 분위기

가천의대 신경과학교실은 연초에 신년회를 개최하여 다가오는 한해를 계획하고 지나간 한해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며 매년 봄에 야유회, 가을에 등산 및 체육대회를 통해 신경과 의국원들과 병동, 외래, 검사실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에 양로원을 방문하여 노인들의 혈압, 당뇨 관리, 건강 상담, 물리치료 및 부족한 물품과 일손을 도와드리며 의료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가족과 같은 의국분위기와 아프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참된 의료의 본 모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5월 회보에는 가톨릭의대 신경과학교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양로원 의료봉사〉

2008년도 대한신경과학회 향설학술상

글 최 광 동 (부산의대 신경과학교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신 대한신경과학회와 전공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도해 주신 부산대학교/서울대학교 신경과학교실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경이 · 안과학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환자 진료 및 논문 작성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신 김지수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신경이 · 안과학에 관심을 가지지 시작한 건 2002년 부산대학병원에 6개월간 근무하셨던 Gregory 장 선생님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 눈의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 병변을 국소화하시고, saccade, smooth pursuit, vestibulo-ocular reflex에 대한 진찰을 하시는 모습에 감동하여 줄곧 따라다니면서 특이한 환자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모으면서 점차 신경이 · 안과학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후 2003년 김지수 선생님께서 해외연수를 마치고 제주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실 때 1개월 간의 파견 근무를 하면서 신경이 · 안과학에 첫 발을 디디기 시작하였고, 2004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경이 · 안과학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임의 시절에는 기초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고생도 많이 했었지만, 모든 의학이 그렇듯이 신경이 · 안과학적 문제를 가진 환자들도 역시 세밀한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진찰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고민 및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없었던 환자를 접했을 때 환자의 병력, 신경학적 진찰, 검사 소견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문헌 고찰을 통해 진단의 실마리를 찾아 끝내 결론을 내리는 과정들이 점차 쌓이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대다수 논문의 아이디어가 세밀한 관찰을 통한 환자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논문을 쓸 때에는 영어가 서툴러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하고, 문단을 매끄럽게 연결하지 못해 계속 고민하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문장을 고치기도 했었고, 영어 논문 하나를 완성하는 데 김지수 선생님께 수정을 받는 과정이 6개월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고 수정하면서 마침내 논문으로 게재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논문 작성 중에 부딪힐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방법을 배운 것이 저에게는 큰 재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특이한 환자가 없어서 논문을 못 쓰는게 아니라 머리를 굴리는 방법을 몰라서 논문을 못 쓰는거다". 항상 김지수 선생님께서 사석에서 무심코 하셨던 말씀인데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문헌에 유사한 환자 보고가 있어도 내 환자와 자세히 비교해 보면 하나라도 다른 면이 있게 마련이고, 이를 고민해서 해결하면 그게 논문이 되고, 다른 신경과 의사들의 환자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무지했던 제 자신을 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훌륭하신 스승님들의 올바른 가르침 덕분으로 아직 시작단계인 제가 이런 큰 상을 수상하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 부담이 느껴지지만, 지금까지 제가 가져왔던 신경이 · 안과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유지한다면 향후에도 더 좋은 연구와 진료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전문의로서 제가 배웠던 훌륭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urrent Publications (최근 발표한 논문)

1. Choi KD, Kim HJ, Cho BM, Kim JS. Saccadic adaptation in lateral medullary infarction and cerebellar infarction. *Exp Brain Res* 2008;188:475-482.
2. Choi KD, Oh SY, Park SH, Kim JH, Koo JW, Kim JS. Head-shaking nystagmus in lateral medullary infarction: patterns and possible mechanisms. *Neurology* 2007 24;68:1337-1344.
3. Choi KD, Jo JW, Park KP, Kim JS, Lee TH, Kim HJ, Jung DS. Diffusion-weighted imaging of intramural hematoma in vertebral artery dissection. *J Neurol Sci* 2007;253:81-84.
4. Choi KD, Kim JS, Kim HJ, Koo JW, Kim JH, Kim CY, Oh CW, Kee HJ. Hyperventilation-induced nystagmus in peripheral vestibulopathy and cerebellopontine angle tumor. *Neurology* 2007;69:1050-1059.
5. Choi KD, Oh SY, Kim HJ, Koo JW, Cho BM, Kim JS. Recovery of vestibular imbalances after vestibular neuritis. *Laryngoscope* 2007;117:1307-1312.
6. Choi KD, Oh SY, Kim HJ, Kim JS. The vestibulo-ocular reflexes during head impulse in Wernicke's encephalopathy.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2007 ;78:1161-1162.
7. Choi KD, Choi JH, Park KP, Kim HJ, Jung DS. Involvement of the septum pellucidum and intracranial vessel in neurosarcoidosis. *Arch Neurol* 2007;64:132-133.
8. Choi KD, Oh SJ, Yang TI, Lee TH. Golfer's stroke from internal carotid artery dissection. *Arch Neurol 2008*; 65:1122-1123.
9. Lee HS, Yang TI, Choi KD, Kim JS. Isolated medial rectus palsy in midbrain infarction. *Neurology* 2008;71:e64.
10. Ahn SH, Oh SJ, Yook JW, Choi KD, Lee TH, Kim JS, Park KH. Recurrent isolated vertigo from hypoplastic vertebral artery. *Eur J Neurol* 2008;15:e51-52.
11. Choi JH, Choi KD, Kim JS, Kim HJ, Lee JE, An SJ. Simultaneous posterior ischemic optic neuropathy, mydriasis, cerebral border zone infarction, and spinal cord infarction after correction of malignant hypertension. *J Neuroophthalmol* 2008;28:198-201.
12. Moon IS, Kim JS, Choi KD, Kim MJ, Oh SY, Lee H, Lee HS, Park SH. Isolated nodular infarction. *Stroke* 2008;40:487-490.

2008년도 대한신경과학회 명인학술상

글 김 한 준 (인제의대 신경과학교실)

지난 가을 부산 Bexco에서 개최되었던 제 27차 대한신경과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명인(연구비)학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대해 주시는 상이 아니라 향후 수행할 연구에 대해 지원해 주시는 성격의 상이라 기쁜 마음보다는 앞으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앞섭니다.

제가 수행하기로 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척수소뇌실조증의 지역적 분포에 관한 연구 (Regional distribution of subtypes of spinocerebellar ataxia in Korea: a nation-wide study)' 입니다. 신경유전학의 발달과 함께 spinocerebellar ataxia(SCA)를 일으키는 유전자 이상들이 계속하여 발견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유전학적 검사를 통해 확진된 SCA환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환자에 대한 자료들은 각 병원 또는 대학에 흩어져 존재하며 전국적인 규모의 자료나 지역별 분포에 대한 자료를 아직까지 없습니다. SCA연구가 활발한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2000년경부터 이러한 지역적 분포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존재하는 환자들이 사망 혹은 이사 등의 이유로 이동하게 되면 기존의 SCA의 지역 분포는 더 이상 조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SCA에 지역분포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연구는 대한신경과학회 차원에서 시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계획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발표되면 처음으로 국내 SCA의 지역적 분포에 대해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신경과 학회 등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본 연구 결과를 국내 자료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 규모의 질병분포에 대한 연구이므로 여러 병원과 선생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만큼 더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연구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주된 관심분야는 이상운동질환으로 현재 파킨슨병 환자들에서 보이는 운동증상(motor symptom)과 인지기능장애, 후각기능장애, 수면장애, 자율신경증상등의 비운동성 증상(non-motor symptom)에 초점을 맞추어 임상 연구를 진행 중이며 파킨슨병을 포함한 파킨슨증후군의 역학적, 유전학적 양상에 대한 연구 및 본태성 진전(essential tremor), 근긴장이상증(Dystonia), 무도증(chorea)등의 발생 기전과 치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지면을 빌어 이상운동질환에 대해 더 넓은 시야를 갖도록 늘 지도해 주시는 서울대 전범석 선생님과 제게 이런 좋은 연구의 기회를 주신 대한신경과학회 회장님과 이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Refereed Publications (최근 발표된 논문)

1. HJ Kim, DH Lee, JH Park. Posttraumatic hemiballism with focal discrete hemorrhage in contralateral subthalamic nucleus. *Parkinsonism Relat Disord* 2008;14:259-261.
2. TB Ahn, SY Kim, JY Kim, SS Park, DS Lee, YK Kim, SE Kim, JM Kim, HJ Kim, J Cho, BS Jeon. Alpha-synuclein gene duplication is present in sporadic Parkinson disease. *Neurology* 2008;70:43-49.

3. HJ Kim, JY Kim, SH Paek, BS Jeon. Novel pattern of levodopa-related motor fluctuations: 'paradoxical' on. *Parkinsonism Relat Disord* 2008;14:281-285.
4. HJ Kim, JY Lee, JY Kim, DG Kim, SH Paek, BS Jeon. Effect of bilateral subthalamic deep brain stimulation on diphasic dyskinesia. *Clin Neurol Neurosurg* 2008; 110:328-332.
5. HJ Kim, YJ Cho, JY Cho, KS Hong. Severe jabbing headache associated with airplane travel. *Can J Neurol Sci* 2008;35:267-268.
6. HJ Kim, YJ Cho, JY Cho, KS Hong, BS Jeon. Choreodystonia in a patient with hypertrophic olivary degeneration after pontine tegmental hemorrhage. *Mov Disord* 2008;23:920-922.
7. HJ Kim, SH Paek, JY Kim, JY Lee, YH Lim, MR Kim, DG Kim, BS Jeon. Chronic subthalamic deep brain stimulation improves pain in Parkinson disease. *J Neurol* 2009;22 (e-pub).
8. HJ Kim, SH Paek, JY Kim, JY Lee, YH Lim, DG Kim, BS Jeon. Two year follow-up on the effect of unilateral subthalamic deep brain stimulation in highly asymmetric Parkinson disease. *Mov Disord 2008;12* (e-pub).
9. HJ Kim, SY Seo. Recurrent emotion-triggered headache following primary headache associated with sexual activity. *J Neurol Sci* 2008;273:142-143.
10. Lee DH, Cho YJ, Kim HJ, Hong KS, ChoJY. A case of compressive myelopathy due to ossification of the cervical ligamentum flavum. *Korean J Clin Neurophysiol* 2008;10:109-111.

한방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조 정 훈 (푸른솔신경과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위원, 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 홍보이사

'한방은 우리 민족 고유의 독창적인 민족의학이며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기에 오랜 세월 환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다.'

'한약은 현대의약과 달리 부작용이 없고 훨씬 몸에 친화적이다.'

이는 상당수 국민들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널리 회자 되는 말이며, 심지어 의사들 중에도 이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소설가 이은성씨가 지은 소설 '허준'의 내용을 이른바 '역사적 진실'로 생각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내용이 과연 진실일까?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말하자면 이렇게 달라진다.

'한방은 우리나라에서만 민족의학이라고 할뿐, WHO(세계보건기구) 정의에 의하면 ' 중국의술에 바탕을 두고 한국내에서 행해지는 의술 '이며, 1986년 한방의 ' 한 '자를 한(漢)에서 한(韓)으로 바꾼 뒤 민족의학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지만, 실체는 분명 중국의술이며 민족의학은 근거 없는 소리이다.'

'동의보감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기존 중의학 지식을 백과사전식으로 모아놓은 책으로, 창작물이 아닌 기존 중의학 지식의 편저이다. 내용에는 귀신을 보는 처방 등 희한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

'단순히 오랜 세월 유지되었다고 효과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점성술이 오랜 세월 전래되었다고 효과 있다고 굳게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약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폐해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정확히 말하면 현대의약은 부작용과 독성을 연구하여 널리 알렸고 한약은 그렇지 않아 부작용과 독성을 알 길이 없어 안전해 보이는 착시 현상일 뿐이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식약청에서 2006년 최종연구결과가 나온 '독성 간 손상의 진단 및 보고체계를 위한 다기관 연구'에 의하면 총 314예의 독성 간 손상 증례조사에서 추정 원인물질로 놀랍게도 '한의사에 의한 한약' 이 82예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서인지 이 연구의 최종보고서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2006년 6월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1999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 중, 약해 사고 31건 중에서 22건은 간세포가 파괴되는 독성간염에 의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심지어 한의사협회에서 2007년 발표한 의료사고 백서에서도 약물 사고가 129건이었고 이에 대한 주요 사례로 피부염 환자의 구토, 비만 환자의 황달, 임산부의 유산과 호흡곤란 등 한약 복용 후 발생된 의료사고가 소개된 바 있다. 2007년 10월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06.4~2007.4 생약 중 중금속 검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산과 수입 한약재 309품목 1949건 가운데 8.5%인 16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생약 166건 가운데서 카드뮴 부적합이 133건으로 80.1%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납 37건(22.3%), 비소와 수은이 각 8건(4.8%)으로 조사되었다. 납 잔류농도 부적합 약재

가운데 국산 '포황' 에서 기준치의 204배인 1023 ppm으로 가장 많은 양이 검출됐되었으며 카드뮴의 경우 중국산 '홍화' 에서 기준치의 20배인 6.0 ppm이 나왔다. 특히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166건 가운데 중국산이 45.8%인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국산도 28.3%인 4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중금속 오염이 국산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2008년에는 '흑삼' 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한약재 중 하나인 '숙지황' 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한약에 대한 독성 및 안전기준이 현대의약보다 턱없이 관대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의약의 경우 독성시험 외에 임상시험을 여러 단계 거치고 이후에도 주기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나 한약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기존 고서에 의한 처방이라면 사실상 임상시험을 면제해주고 있고 독성 시험 및 안전성 시험도 현대의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이런데도 '한약은 안전하다, 몸에 친화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

비단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과대광고 및 비과학적인 치료 등 한방의 폐해는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한다. 특히 만성질환을 다루는 우리 신경과 의사들은 더더욱 그렇다. 한방 모 학회 회장은 '고혈압 약은 서양의학이 만든 독약이며 당장 중지해야 하며 고혈압 환자의 증가는 의사들이 제약회사의 로비에 넘어가서 그런 것' 이라고 버젓이 말하고 있고, 경희대 한의대 모 교수는 '어린이 예방접종은 필요 없다' 고 강의한 바 있다. 아울러 한의사의 반 정도는 태아의 성별은 수정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결정된다고 믿으며 한약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일전에 사스(SARS)가 문제가 될 때 한의학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한의협 차원에서 주장하다가 의료계의 거센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제일 첫 화면에는 '중풍은 한방으로' 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으며 '중풍이 의심되면 바로 인중에서 피를 내고 빨리 한의원으로 데리고 가라' 고 하고 있다.

이러 한방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의사의 인성과 도덕성에 기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한의사라고 해서 특별히 비양심적일 리도 없거니와 일부의 사례로 일반화 시켜서도 안 된다. 이는 한의사 개인의 양심 문제가 아니라 한방 자체의 문제, 다시 말하면 정답이 없고 검증방법이 없는 한방 자체의 문제에 기인한다. 즉 객관적인 검증 방법 없이 고서에만 의존하고 일부 목소리가 큰 몇 사람의 한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법과 제도, 한의학 학문 자체의 문제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그러기에 더더욱 실제로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그동안 한방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에 편승하여 알게 모르게 옹호해 온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현대의학과 한방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익집단의 충돌쯤으로 생각해서 가급적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을 추구하는 의사로서 한방 문제에 있어서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는 한방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가 있다. 이의 전신은 2005년 발족한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이다. 당시 한방측은 영역확대라는 미명하에 '감기치료는 한방에서', '임산부에게도 안전한 한약' 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대대적으로 배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각과 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각과에서 교수, 개원의들을 포함한 단체를 구성하여 대응하였고 이후 이 단체는 의협 산하 기구로 변화하였다. 필자는 발족 당시부터 신경과개원의협의회 추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의 활동 상황을 보면 불법 행위한 한의사 고발 조치, 한방과의 CT 소송 판결 참여, 한약 분석 발표, 간행작업,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분석, 토론회 및 순회 강연, 대 언론 및 정치권 활동 등 여러 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문제 및 전재희 장관 취임 이후의 한방 편향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1인 시위 등을 통해 계속 활동 중이다.

현대의학과 한방과의 갈등은 결코 수준 낮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이는 신념과 패러다임의 충돌이며 우리 의사들이 극복하고 풀어야 할 과제이다. 사실 한의사 개개인 역시 잘못된 학문의 피해자이며 무엇보다 '국민' 이라는 더 큰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사들이, 특히 한방의 폐해를 어떤 의사보다도 많이 경험하는 우리 신경과 회원 여러분이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도 걸리고 난관도 많겠지만 결국에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의료일원화' 라는 숙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푸는 일이 될 것이다.

2009년 통합학술대회 계획과 이모저모

대한신경과학회는 학문적인 측면뿐아니라 규모면에서도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여 어느 국제적인 학회에도 손색이 없는 학회로 발돋음 하게 된 것은 신경과학회의 모든 회원님들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회원 수와 발표연제 규모로 보아 본 학회를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08년도 부산 Bexco 학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가 학술대회공간이 잘 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진들은 2009년도 대한신경과학회 통합학술대회가 학술교류 및 회원간 만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산 킨텍스(Kintex)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학술대회를 아래의 일정에 따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교통과 숙박시설이 다소 원활하지 않은점은 있으나, 학술대회 진행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이미 이곳은 국제학술대회와 국내의 의학관련학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기에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생각됩니다.

글 김 승 현 (한양의대 신경과학교실)

1. 2009년도 통합학술대회 안내

- 일시 : 2009년 10월 8일(목) ~ 11일(일)
- 장소 : 일산 Kintex
- 주제 : Harmony and Globalization
- 초록접수 : 2009년 4월 1일 ~ 7월 31일
- 사전등록 및 접수 : 신경과 홈페이지 참조

"Harmony and Globalization" 이라는 주제 하에 대한신경과학회와 자학회 및 인접학회와의 학문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2009년도 대한신경과학회 통합학술대회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학술대회는 4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제1일(10월 8일, 목)과 제4일째(10월 11일, 일)에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신경과 전공의 및 전문의와 인접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소홀해왔던 부분에 대해 새롭게 개념정리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하고 2일째와 3일째에는 심포지엄과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며, 금요일에는 이사장 초청만찬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저명한 연자를 초정하여 plenary lecture와 parallel symposium을 구성하여 명실공히 국제적인 학회로서 손색이 없도록 다양한 주제로 구성될 것입니다.

2008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구연발표는 전공의 발표, 일반발표, 영어발표로 진행되며 포스터발표는 2일간에 걸쳐 분야별로 주제가 발표되고 각 분야별로 우수발표상이 마지막날 폐회식에서 시상될 예정입니다.

특히 Morning lecture 및 evening lecture와 일부심포지엄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심포지엄제안서를 취합하여 회원들 가운데에서 강의와 심포지엄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이에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 통합학술대회 일정 및 계획안 (2009년 10월 8일 ~ 11일, 목 ~ 토)

- Educational program Ⅰ, Ⅱ (목요일, 일요일)
  신경과 전공의 및 인전분야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목요일)
  개원의 및 신경과 전공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workshop (일요일)
- Workshops (EEG, EMG, NCV, TMS, EP, TCD,)
- Morning lectures Ⅰ ~Ⅵ (금, 토)
- Evening lectures; Ⅰ ~ Ⅸ (목, 금, 토)
- Satellite symposium Ⅰ ~ Ⅵ (목, 금, 토) 주 후원회사
- Parallel symposium Ⅰ ~ Ⅳ (금, 토)
- Korea-Japan Symposium (금)
- Plenary lectures Ⅰ, Ⅱ ; (금, 토)
- Oral presentation (일반, 전공의, 영어)
- Poster presentation ;

educational program과 morning and evening lecture와 parallel symposium의 일부는 회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심포지엄제안서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신경과학회 home page에서 download 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

● 고시위원회

1. 제52차 전문의고시 시행

1) 1차 필기시험: 2009.1.8일 실시 (유한공고)
- 신경과 86명 응시, 85명 합격
- 총 140문제: 객관식 120문항 (A type 110, K type 4, R type 6) (100점 만점)
- (배점 문항당 0.7점) + 주관식 20문항 (0.8점)

2) 2차 슬라이드 및 동영상 시험: 2009.1.16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 슬라이드 70문항 (각 0.7점) + 동영상 30문항 (각 0.7점) (총70점)

3) 3차 구술 및 CPX 시험: 2009.1.17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및 내과외래
- 구술시험: 2 증례 (15점) + CPX: 1 모의환자 증례 (15점) (총30점)
- 2,3차 88명 응시

2. 제53차 전문의고시 출제 계획

1) 1차 필기시험: 주관식 문항수 줄일 예정
- 객관식 문제에서 K type 문항 감소 또는 불출제 예정
- R type 문항수 증가 예정

2) 슬라이드 및 동영상 시험에서 문제지도 제작 배포 예정(그동안 답안지만 배포)

3) 구체적 사항은 다음 뉴스레터 및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3. 고시위원장이 지도전문의들께 드리는 감사와 당부의 말씀

우선 1차에서 3차 시험까지 문제선택위원, 구술 및 CPX 평가위원, CPX준비위원 등으로 수고해주신 많은 지도전문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고시위원장으로 3차 시험까지 치르는 동안 역대 고시위원장님들과 고시위원들의 노고로 문제은행이 잘 개발되어 관리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훨씬 수월하게 출제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출제과정에서 선택위원들이 문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신경과 전공의들이 흔히 접하는 다빈도 질환에 대한 증례와 문제가 많이 보충되어야 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분야나 난이도에 편중됨이 적고 변별력이 높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빈도 질환의 임상경과를 잘 기술한 증례, 관련된 슬라이드 및 동영상 자료, 해결형 문제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계 문제은행정리시기나 전문의고시 출제시기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해서 좋은 문제나 증례를 pooling하려고 합니다.

지도전문의들께 문제까지 출제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좋은 증례(실물자료 포함)와 함께 증례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학습항목'만 3~5가지 정도 comment해서 보내주시기만 해도 되게 하였습니다. 물론 문제까지 출제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보내주신 증례와 문제에 대해서는 학회 예산범위 내에서 출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경과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증례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신경과학회 사무실이나 고시이사 연구실(정진상, 우편번호 135-710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입니다. 그리고 전문의고시와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cspaul@naver.com).

● 보험위원회

1. 신경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에 회신한 내용
-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자극근전도와 운동유발전위를 이용한 척추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
- 뇌사판정 관련 추가 내용
- 의견요청(경구용 항혈소판제-아스피린정, 플라빅스 정 등)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중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지정을 위한 의견조회"관련
- "완제의약품 생산, 공급 중단 보고 관련 고시 제정에 관한 의견"
- "amiloride와 spironolactone의 병용금기"의견 요청
- "뇌대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 일반원칙"중 "의식이 극히 저하된 중증의 뇌병증 환자"의 구체적 진단기준
- "케프라정(한국유씨비제약)"의견 요청
- "의료행위 행위정의 근거자료 보완 협조 요청(뇌사판정을 위한 검사, 신경학적 척도검사: 운동질환척도)"

2. 퇴장방지의약품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 멕실레틴 (mexiletin, 베링거인겔하임)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자문위원 추천: "비외과적 질환의 환자에게 심부정맥혈전의 예방목적으로 장기투여된 저분자량 헤파린" 관련-동국대일산병원 김남희

4. 불합리한 급여기준 회신 내용

1) 보건복지가족부로 회신
- SSRI 관련해서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대한치매학회에서 작성한 내용.
-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a. 염산셀레길린(Selegiline hydorchoride)과 항우울제 병용처방에 관한 건의서
  b. 신항우울제(atypical antipsychotics)인 Quetiapine의 파킨슨병 에서 처방 인정기준,
- 대한치매학회: 항우울제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2) 대한의사협회로 회신
- 확산-관류 불일치 환자의 MRI 추적 검사 급여 건
- Post Stroke Depression 및 Emotional Incontinence 에 SSRI 처방 기한 연장 건
- Thalamic Syndrome 등 central origin pain 에 대한 gabapentin 및 pregabalin 급여 건

3)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서 자극발생기 프로그래밍(영문명: Programming of implanted neurostimulator pulse generator system)관련 결정조성신청서 공문을 작업 중임.

4) 대한의사협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약제급여기준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고 있사오니,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기한: 2009년 2월 10일(화)까지

• 의견 보내주실 곳: 02-737-6530, knakim@neuro.or.kr (담당: 김현주 대리)

● 수련위원회

1. 2009년 전공의 정원 배정

1) 67개 병원에서 112명 전공의 신청 받아 서류 심사 및 11개 병원 현지실사시행

2) 병협과 협의 과정에서 63개병원 99명 전공의 정원 배정 (2008년 62개병원 96명)

- 기존 전공의 정원에서 감소된 병원 : 0개
-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 병원 : 2개(영남대, 고신대)
- 신규 1명 배정 병원 : 울산대
- 정원 배정받지 못한 병원: 4개(대구파티마, 대전성모, 분당제생, 강릉아산)

2. 대한의학회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내용이 오래되어 현재 신경과 학회 내용과 다르므로 수련위원회와 수련과장 설문,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한의학회에 제출함.

3. 전공의 수련지침개정

2005년 전공의 수련지침 발간 이후 2009년 개정을 목표로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4. 수련과장회의

- 일시 : 2009년 2월 20일(금) 오후 3시 30분
- 장소 : 대전 아드리아호텔

5. 신입전공의 입문교육

- 일시 : 2009년 2월 20일(금)~21(토)
- 장소 : 대전 아드리아호텔

● 정보위원회

1. 대한신경과학회 홈페이지 개편

- 사이트 오픈일 – 2008.11.17.
- URL– http://www.neuro.or.kr

1) Design

* Main color는 기존의 옐로우색에서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블루톤 계열로 변경.

* 메인플래쉬를 좀 더 학회 성격에 맞는 이미지로 교체.

* 메뉴 변경으로 인해 메인 페이지 화면 구성을 변경.

2) 전체 메뉴를 통폐합

기존 메뉴 중 유사한 내용끼리 그룹을 나눠 메뉴를 통합하였고 그에 맞게 메뉴명을 변경함.

① 일반인 공간

1-1) 학회소개 : 자학회 메뉴 신설 , 신경과와 신경계 메뉴 명칭 변경 : 신경과란?

1-2) 간행물 : 학회지 검색 메인 페이지 신설(current issue 및 검색 등)

1-3) 관련사이트 : 메뉴 정리 및 컨텐츠 정리

- 자학회 및 인접학회, 기타학회 및 단체, 종합병원, 개인병원 및 교수 홈페이지, 질병정보, 외국

② 회원공간

2-1) 학회소식 : 역대 시상 메뉴 신설, 학회 건의사항 메뉴 이동

2-2) 간행물 : • 학회지 검색 메뉴 명칭 변경

- 초록집 및 보수교육 메뉴 신설 : 역대 행사 정보 및 초록집 및 보수교육 강의 파일 정보 제공, 학술대회 메뉴와 연동
- 동영상 자료 : 학술대회 메뉴와 연동
- 논문작성요령 : 기존 편집위원회 워크숍 강의록 메뉴 변경
- 전공의 수련 지침서 메뉴 신설 : 전공의 수련 지침서 pdf 파일 다운로드
- 홍보 및 교육자료 메뉴 신설 : 신경과 교과서 그림 및 교육 자료 제공

2-3) 커뮤니티 : • 전공의 게시판 커뮤니티 서브 메뉴로 변경

- 지부학회 : 기존 지부학회 증례 메뉴 삭제 및 지부학회 기존 데이터 서울/경인지회로 데이터 이전
- 자료실 : 각 위원회별 자료실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 만듦
- 구인/구직 :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동

2-4) 위원회 : – 위원회 메인 페이지 신설

- 각 위원회별 게시판, 자료실 통합
- 위원회별 회의일지 및 외부회의 보고서 위원회 코너로 이동
- 위원회별 게시판, 자료실 데이터 검색 기능 개발
- 공문 메뉴는 삭제 예정

2-5) 홍보 및 교육자료 : 신경과 교과서 그림 및 교육 자료 제공 메뉴

- 기존 수련병원 메뉴 삭제 후 신설 됨.
- 기존 수련병원 자료실 데이터는 커뮤니티 〉 자료실 〉 학회자료실로 이동

3) 다양한 컨텐츠 업데이트 및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① 역대 시상 코너 신설
: 역대 MSD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수상자 내역 소개

② 초록집 및 보수교육
: 역대 행사 정보 및 초록집, 보수교육 파일 제공

③ 전공의 수련지침서
: 전고의 수련 지침서 컨텐츠 업데이트

④ 홍보 및 교육자료
: 신경과학회 교과서 그림 및 교육 자료 업데이트

⑤ 학회 자료 검색
: 회원공간의 학회 공지사항, 학회 공지공문, 기타 공지사항, 각 위원회별 게시판, 자료실, 커뮤니티 등 컨텐츠 검색 기능 강화

⑥ 공지사항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 에디터 게시판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2. 2009년도 계획

1) 홈페이지 개편 관련 수정사항

2) 자료 업로드 – 역대시상, 관련사이트, 홍보 및 교육자료

3) 초록집 및 보수교육 파일 분할하여 데이터베이스화.

4) 자료 링크 수정 – 학회지
5) 스캔 작업 – 공문

편집위원회

▶ 2008년 편집위원회 활동

1.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SCIE 등재 – 2008년 3월 14일

2. 표지 변경 – 대한신경과학회지 26권 2호부터 JCN 4권 3호부터

3. JCN 2008년 6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 인정

4. JCN 논문투고 홈페이지 제작 – online submission system 구축

5. JCN 홈페이지 신설 http://thejcn.com/

6. JCN – Korea Med 등재, Synapse에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전문 검색 가능

7. JCN 종설 원고를 전체 회원에게 공모하여 심사를 통해 10편의 원고 채택 – 2009, 2010년에 게재 예정

8.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학술지발행 지원사업
   – JCN은 학진 지원사업에 면담심사를 거쳐 2009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됨

9. 2008년 통합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우수논문상 시 상

10. 학술대회 편집위원회 Symposium
    • 내용 : 연구윤리/강사: 홍성태(대한기생충학회)

11. 편집위원회 Evening Symposium
    • 내용 : SCI 잡지에 accept 되는 노하우와 reject 되는 지름길
    • 강사 : 강동화(울산의대), 방오영(성균관의대)
    • panel : 김종성(울산의대), 나덕렬(성균관의대), 이명식(연세의대), 김지수(서울의대)

12. JCN citation
    • 전체 회원에게 주기적으로 JCN list 발송, citation 안내 및 장려
    • 신경외과학회와 TOC 교류를 통하여 citation 증진

13. 대한신경과학회지 2008년 한국한술진흥재단 계속 평가 결과 – 등재 유지

▶ 2009년 활동계획

1. JCN의 PubMed Central 등재 시도

2. 학술진흥재단 국제 및 국내학술지발행 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응모

3. Workshop 및 Symposium (제목 미정)

홍보위원회

▶ 홍보소책자 개정 보완 사업 완료

1. 홍보 위원회에서는 신경과 홍보소책자를 개정 보완하여 기존의 9개에 간질과 통증을 추가하여 모두 11개의 홍보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신경과질환이 심각하고 치유되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치유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개정 보완된 홍보소책자는 대한신경과학회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 올려서 2월부터는 신경과회원 뿐 아니라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경과 회원이면 누구나 원할 경우 신경과학회에 고지한 후 내용의 일부나 삽화를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개정 보완된 홍보소책자에 맞추어 기존의 홍보 행사용 배너도 개정 보완되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신경과 홍보 소책자의 개정 보완을 맞이하여 2009년 2월까지 홍보책자를 주문하시는 회원들에게 조그만 행사를 진행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회원들께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주요 사업계획

1. 홍보 소책자을 이용한 적극적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2. 신경과 질환에 대한 질환별 대국민 홍보용 교육슬라이드 제작

3. 대국민 홍보 활동을 위한 대한신경과학회 연관학회와의 연계활동 강화

지부 동정

강원지부

회 장 배재천 (배재천신경과의원)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1997년
- 회원수 30명
- 장 · 단기계획 연 3회의 학술대회 개최와 인적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간단한 소개 강원도 신경과 친목도모 및 최신 신경과학 경향을 습득하기 위한 모임.

◎ 학술대회 일정

1. 2009년도 제1회 강원지회 학술대회
- 일시 2009년도 3월 28일
- 장소 용평리조트
- 주제 파킨슨병의 이해 & 새로운 진단 방법의 소개
- 주체 강릉 아산병원

2. 2009년도 제2회 강원지회 학술대회
- 일시 2009년도 6월~7월
- 주체 원주 기독병원

3. 2009년도 제3회 강원지회 학술대회
- 일시 2009년도 9월~10월
- 주체 강원대학교병원

광주전남지부

회 장 손의주 (광주상무병원)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2006년
- 회원수 58명
- 장 · 단기계획 1) 전남 광주지역 회원간 친목도모 (친목행사개최 연 2회) 2) 학술행사를 통한 학문적 교류(연 4회 계획중)
- 간단한 소개 2006년 3월 25일 창립되었고 창립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전남 광주 지역 신경과 회원간의 단합과 서로의 학문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음.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칭 2009년도 대한신경과학회 광주전남지부 학술심포지엄
- 일시 2009년 3월
- 장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덕재홀
- 주제 어지럼증의 최신지견
- 주최 대한신경과학회 광주전남지부

※ 학술대회는 1년에 3회 (3월, 6월, 9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지부

회 장 임정근 (계명의대)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1993년 1월
- 회원수 139명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 장 · 단기계획 지역사회의 신경학 분야 의료를 담당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학회가 된다. 신경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집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회원간의 교류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신장시킴.
- 간단한 소개 대구경북지역의 신경학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연 4회 집담회를 하고 있음.

◎ 학술대회 일정

- 2009년 1월 20일 신년 교례회
- 2009년 3월 24일 통증 및 증례토의
- 2009년 6월 23일 뇌졸중 및 증례토의
- 2009년 9월 22일 말초신경질환 및 증례토의
- 2009년 12월 1일 일반연제 및 증례토의

※ 모든 회원들이 집담회에 참석하여 학술토론과 회원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람.

부산경남지부

회 장 김상호 (동아의대)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1992년
- 회원수 200여 명
- 장 · 단기계획 대학병원 위주의 모임에서 봉직의와 개원의가 함께 동참하는 모임으로 운영하고, 연 4회 정도의 학술대회 및 집담회를 계획하여 시행할 예정임. 회원간의 상호친목과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학술 및 연구 활동의 저변 확대를 도모할 예정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칭 부산 · 경남 신경과지회 2009년도 춘계 심포지엄
- 일시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롯데호텔

부산경남지부

회 장 김상호 (동아의대)

• 일정

2:30–2:50	Registry
2:50–3:00	Opening Remark (부산경남신경과지회장 김상호 교수)
1부: Update in Neurology	
3:00–3:20	Recent update in Parkinson's disease (동아대학교 신경과 천상명 교수)
3:20–3:40	Recent update in Stroke (부산대학교 신경과 박경필 교수)
3:40–4:00	Recent update in Sleep (부산대학교 신경과 조재욱 교수)
4:00–4:20	Coffee break
2부: 신경영역의 초음파	
4:20–5:20	경두개 도플러 (원광대학교 신경과 김요식 교수)
5:20–5:30	Coffee break
5:30–6:30	경동맥 초음파 (충남대학교 신경과 김대현 교수)
6:30–6:40	Closing
6:40	Dinner

중부지부

회 장 오건세 (을지의대)

◎ 지부 현황

• 회장 오건세(을지대학병원)
• 총무 김용덕(건양대학병원)
• 간사 이보람(을지대학병원)
• 학술 손은희(충남대학병원)
• 고문 이상수(충북대학병원)
김재일(단국대학병원)
김재문(충남대학병원)
• 장·단기계획 충청남북도, 대전지역 신경과 회원의 학문 발전과 친목을 도모한다.

◎ 학술대회 일정

※ 학술활동; 분기별로 개최(3월, 6월, 9월, 12월)
• 1분기 강의 및 증례토의
• 2분기 강사초빙
• 3분기 학회발표 구연 및 증례토의(preview)
• 4분기 강의 및 증례토의
※ 중부지회 Workshop

• 목적 대전 충정지역 전공의 수련를 활성화시키고 실제 환자를 보는데 필요한 술기를 익히기 위함.
• 방법 각 section chief가 주관하여 분기별로 시행, 2년에 한 회기
• Schedule

General neurology	을지대 오건세 교수	통계 정두신
Stroke	충남대 김제 교수	이상봉, 이수주, 이보람, 오형근, 김대현, 이기욱
Epilepsy	충남대 김재문 교수	박형국, 이성현, 이근호
Dementia	충남대 이애영 교수	윤수진
Movement	건양대 김용덕 교수	신동익, 송인욱
Peripheral	충북대 이상수 교수	손은희, 나상준, 전종훈
Sleep	미정	
Vertigo	단국대 김재일 교수	정성해

호남지부

회 장 김진호 (조선의대)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1995년
• 회원수 86명
• 장·단기계획 신경과학회 회원의 권익과 친목도모 및 신경과학회의 연구발전, 신경계질환에 대한 지역주민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 간단한 소개 1995년 12월 14일 창립한 본 지회는 2년의 임기로 회장, 총무, 학술, 감사의 임원진을 두고 연 4회의 학술집담회를 매년 가져 왔다. 학술집담회는 4개의 의과대학을 번갈아가며 초청강연과 흥미로운 증례토의를 하는 모임으로 되어 있으며 임원임기 2년 중 1회의 학술집담회를 열고 있다.

◎ 학술대회 일정

• 본 호남지회는 빠르게 발전하는 신경과학의 흐름을 지회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회원들 간 안면을 익히며 친목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9년 본 지회는 분기별로 총 4회의 정례모임과 1회의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4회의 정례모임은 본 지회를 구성하는 4개의 대학(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원광대)에서 번갈아 가며 한 번씩 모임을 하게 되는데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의 내용은 연사초청 강연과 대학별 증례발표로 이루어지며 이후 저녁식사와 더불어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계획 중인 학술대회는 일정 주제를 테마로 초청 연사와 본지회의 멤버가 준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Newsletter

자학회 동정

대한다발성 경화증연구회

회 장 이광호
(성균관의대 신경과)

◎ 연구회 활동내용

2005년 8월 연구회 설립이래 매년 심포지엄과 집담회 등의 학술행사를 통해 회원 간 정보를 교류하고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적인 교류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 또한 중추신경계 탈수초질환의 주요 이슈에 대한 consensus를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개발하고 공동연구의 방법론을 모색하며 증례수집을 통해 우리나라 탈수초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복지부 과제로 다발성경화증의 전국 유병률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적 규모의 역학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Sjogren 병 증례를 수집하여 다발성경화증과의 임상적 감별에 대한 연구결과를 해외학회에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제4회 정기 심포지엄에서는 처음으로 회원들의 연구결과를 구연발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술대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8년 총회에서 대한 탈수초질환 연구회(Korean study group for multiple sclerosis and other demyelinating diseases)는 대한다발성경화증연구회(Multiple sclerosis study group)로 회명을 변경하였고 본격적으로 다발성경화증에 초점을 둔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2009년 연구회 활동계획

2009년에도 연구회는 그 간의 학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더욱 발전된 연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2009년 4월 다발성경화증 임상네트워크 과제 2차년도 개시
2. 2009년 5월 11일 (월) 집담회
3. 2009년 7월 11일 (토) 학술대회 및 총회
4. 2009년 9월 9일~12일 25th ECTRIMS (Dusseldorf, Germany)
5. 2009년 11월 2nd PACTRIMS 참가 (HongKong)

연구회에서는 2008년 9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사업단 세부과제로 다발성경화증 임상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6개 병원에서 18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총 4년 계획으로 다발성경화증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자등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 주도형 연구과제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2년 계획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에는 각 병원의 신경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참여하시는 회원들이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8년 11월에 첫 학회를 시작으로 설립된 PACRIMS(Pan Asian Committee for Treatment and Research in Multiple Sclerosis)는 향후 아시아 지역의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주요 학회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첫 학회에 한국에서 약 30명의 신경과 의사가 참여하여 활발한 학술교류를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연구회 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축적된 자료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국의 신경과가 주도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전망

다발성경화증은 우리나라에서는 발병이 드문 희귀질환이지만 세계적으로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며 만성적인 경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큰 질환입니다. 또한 신경과 의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신경과 분야에서 대표적인 고유 질환의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결과가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에서는 서양과 구분되는 특별한 임상적 양상이 비교적 흔히 나타나며, 따라서 우리나라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특성과 진단, 치료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회는 많은 신경과학회 회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에는 진행되고 있는 연구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계획한 학술활동에 많은 회원들의 참여로 더욱 발전된 연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자료와 연구결과가 해외학회에서 활발히 발표되고 아시아지역의 선도적인 위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 수면연구학회

회 장 홍승봉
(성균관의대 신경과)

대한신경과학회 회원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많은 업적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002년에 설립된 대한수면연구회는 대한신경과학회 회원님들에게 수면의학의 중요성을 알리고 많은 분들에게 수면의학을 전수하여 primary sleep disorders 및 신경과 질환에 자주 동반되는 sleep disorders를 신속하게 진단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면의학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미 기존 학회 수준의 학술대회를 열고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었던 차 작년 말에 명칭을 대한수면연구학회로 새롭게 변경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수면장애(Sleep disorders)로는 불면증(insomnia, 유병율 10-20%), 수면무호흡증(sleep apnea syndrome, 4-5%), 기면병(narcolepsy, 0.1%), 하지불안증후군 (restless legs syndrome, 7%), 사건수면(parasomnia) 및 일주기리듬수면장애(circadian rhythm sleep disorder, 5-8%)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유병율만 합하여도 30%가 넘어서 수면장애는 어떤 다른 질환 보다 더 흔한 질환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서 수면장애의 유병율이 더 높으므로 여러분께서 보시는 신경과 환자 2-3명 중에 1명은 수면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면장애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부정맥, 심부전, 심근경색증 등 다른 성인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뇌졸중 재발율을 높이고 재활을 느리게 합니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은 치료를 하지 않을 때에는 치료를 받는 군에 비하여 생존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수면장애는 비교적 간단한 수면문진(sleep history)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료시 수면에 대한 병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적어서 수면장애의 진단율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신경학적 검사에 수면문진(sleep history)이 꼭 포함될 수 있길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 대한수면연구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가 여럿 있습니다. 수련병원 과장님 및 교수님들께서는 많은 전공의들이 참여하여 수면의학을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십시오.

올해 전반기에는 크게 4가지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 2월 14일(토)에 대한수면연구학회 중급 수면검사 Workshop이 있습니다. 수면검사의 새로운 판독 규칙에서부터 각 수면장애 별 수면검사 분석까지 폭 넓고 깊게 다룰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두번째는 3월 25일-28일 4일간 세계수면무호흡학회(World Congress on Sleep Apnea)가 COEX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수면학회로 수면무호흡증의 최신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외래 진료, 검사 schedule 등을 조절하셔서 회원님 병원의 전공의, 전임의, 수면기사, 간호사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도록 독려하여 주세요. 수면무호흡증의 병태생리, 진단, 치료 및 연구 등에 대한 최신 지견을 한번에 들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세번째 행사는 4월 18일-19일(토, 일) 2일 동안 미국에서 불면증의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Dr. Perlis의 CBT-I (Cognitive Behavior Therapy for Insomnia) program를 그대로 한국에서 Dr. Perlis와 대한수면연구학회 주관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일간 full day로 동시 통역을 이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면증은 수면장애 중 유병율이 가장 높은 질환입니다. 불면증은 먼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야 하고, 일차성 불면증(primary insomnia)으로 진단되면 비약물적 치료법인 인지행동치료(CBT)가 주 치료법이 되어야 합니다. 수면유도제는 사용하지 않거나 불면증이 심할 때에 가끔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가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CBT 교육 프로그램을 훨씬 저렴한 등록비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참석 인원을 50-60명 정도로 제한할 예정이니 빠른 등록 바라겠습니다 (등록비는 전문의 25만원, 전공의, 심리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은 20만원입니다).

네번째는 6월 27일(토)에 열릴 예정인 대한수면연구학회 학술대회입니다. 수면의학 전반에 걸쳐서 최신 지견 및 연구 상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각 병원의 수면의학 관련 의료진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ewsletter

자학회 동정

대한 근신경질환학회

회 장 김승민
(연세의대 신경과)

대한근신경질환학회는 2008년 6월 설립이래 활발한 학술행사를 진행하여 회원 간 교류를 증진하고 학술연구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2009년도를 맞이하여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모임을 통해 근신경질환에 대한 연구와 학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연수강좌

올해는 3회째로, 6월 20일 한양대 HIT 에서 신경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연수강좌를 실시합니다.

◎ 정기모임

분기별에 한번씩 (3월, 6월, 9월, 12월) 모임을 가지며, Research topic, case 발표 등을 실시합니다. Research topic 에서는 연구과제 제안과 토론을 가질 예정이며, case 발표에서는 흥미롭고, 관심 있는 증례를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논문 초독회

올해 부터는 논문 초독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며, web base meeting 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녁시간에 모이기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도권과 지방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공간적 제한성을 없애기 위해 web base meeting 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회 장 김주한
(한양의대 신경과)

2009년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AOCCN 2009 아시아 오세아니아 임상신경생리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 대양주지역 11개국 학회 회원은 물론 전세계 임상신경생리 연구 전문가 8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임상신경생리학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 초록들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널인 Clinical Neurophysiology에 부록으로 실릴 예정이니 논문발표를 통하여 이번 학술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30여명의 초청 연자들이 기조강연, 심포지엄, 워크숍을 통해서 최신 지견과 연구동향, 테크닉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칭** 2009 아시아 오세아니아 임상신경생리학회 학술대회
- **일시** 2009년 4월 15일 ~ 4월 18일
- **장소**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 **초록제출마감** 2009년 1월 31일
- **사전등록마감** 2009년 3월 15일

http://www.aoccn2009.com

알림란 / 회원동정 경조사

[홍 승 봉 교수]

■ 홍승봉교수는 삼성서울병원에서 2008년에 발간한 논문들의 impact factor의 합이 가장 높은 교수에게 수여하는 "최고 SCI 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김 지 수 교수]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지수 교수가 2008년 12월 16일 서울의대 동문회에서 수여하는 "함춘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박종호	관동의대명지병원	부친상	2008년 10월 03일
김은주	부산대병원	부친상	2008년 10월 24일
노숙영	분당제생병원	부친상	2008년 11월 05일
김영진	건국대병원	부친상	2008년 11월 10일
김진수	김진수신경과	모친상	2008년 11월 22일
신기춘		부친상	2008년 12월 10일
위봉애		부친상	2008년 12월 12일
이필휴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부친상	2008년 12월 28일
한문구	서울대분당병원	빙부상	2009년 01월 20일

[결혼을 축하합니다]

류위선	서울대병원	축결혼	2008년 10월 11일
배은기	서울대병원	축결혼	2008년 10월 11일
곽재규	삼성서울병원	축결혼	2008년09월 21일
김지은	서울대병원	축결혼	2008년 01월 19일
김치경	서울대병원	축결혼	2008년 01월 19일
황재춘	삼성서울병원	축결혼	2008년 12월 27일
변소영	한림대병원	축결혼	2009년02월05일

Plavix®

Clopidogrel 75mg

Take Protection Further. Today.

플라빅스 만이

7천만명 이상의 처방경험과[1]

10만명 이상의 임상을 통해,[2]

죽상혈전증의 모든 영역에서

일관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KR_CLO_08.03.11

플라빅스®정 75밀리그람

전문의약품

■ **원료 약품 및 그 분량** : 1정 중 주성분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봉규) 97.875mg (클로피도그렐로서 75mg) ■ **효능·효과** 1)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상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의 개선 2) 급성관상동맥증후군(불안정성 협심증 또는 비Q파 심근경색 환자에 있어서, 약물치료 또는 관상중재시술(PCI)stent 시술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및 관상동맥폐쇄우회술(CABG)을 받았거나 받을 환자를 포함)이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불응성 허혈의 개선 ■ **용법·용량** 1)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상질환이 있는 환자: 음식물의 섭취와 상관없이 1일 1회 1정 (75mg)을 투여 2)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불안정성 협심증 또는 비Q파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 : ① 약 300mg을 초회 투여하고, 이후에 아스피린75 ~ 325mg과 병용하여 1일 1회 1정75mg을 음식물의 섭취와 상관없이 유지 용량으로 투여. 고령자 또는 신질환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 **경고** : 1) 이약을 단독 또는 아스피린과 병용 투여시 출혈을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의 경우보다 오래 소요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알리고, 출혈이상 (출혈부위 또는 지속시간)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지도한다. 환자는 수술 계획 전 또는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2)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TTP) : 이 약 사용 후에 드물게 TTP가 보고되었으며, 때때로 단기간 사용(2주 이내) 후에도 보고되었다. TTP는 즉시 혈장분그린술술(혈장교환법)과 같은 치료를 요하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중증의 상태로서 혈소판감소증, 미소혈관 용혈성 빈혈, 신경학적 소견, 신부전 및 발열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 ■ **금기**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투약 당시 소화성궤양 또는 두개내 출혈과 같은 병적인 출혈이 있는 환자 3) 중증의 간 손상 환자 4) 수유부 5) 선천적으로 갈락토오스 불내증, 락타아제 결핍증,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가 있는 환자 (우당 의무제제에 한함) ■ **신중투여** 1) 위장관 출혈 환자 2) 출혈 경향을 가진 병변(최장 동)이 있는 환자 및 출혈 위험이 증가한 환자 3) 간기능 손상 환자 4) 신기능 손상 환자 5) 급성 뇌졸중 환자 (7일 이내) ■ **이상반응** : 1)출혈장애 2)혈액학적장애(후중구감소증/무과립구증 등) 3)위장관계증상(메, 복부통, 소화불량, 위장염 또는 변비) 4)발진 및 기타 피부질환 5)기타이상반응 ■ **제조원** 제조의뢰자: Sanofi Pharma Bristol-Mayers Squibb SNC(174 avenue de France, 75013 Paris, France) 제조자: Sanofi Winthrop Industrie (1 rue de la Vierge, Ambares et Lagrave, 33565, Carbon Blanc Cedex, France) 소분제조자: (주)한독약품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3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제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Plavix Global sales IMS Health May 2007. 2. Bhatt DL. Topol EJ. Scientific and therapeutic advances in antiplatelet therapy. Nat Rev Drug Discov. 2003; 2: 15-28.

sanofi aventis
Because health matters
판매원 / Copromoted by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35번지
Tel. 02-527-5500 Fax. 02-527-5551

Copromoted by
한국 BMS 제약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 3동 942번지
Tel. 02-3404-1300

The safest & first choice

Reduction rate of hemorrhagic risk (vs ASA)

TIM Study[1] 33% ⬇
TACIP Study[2] 53% ⬇
TAPIRSS Study[3] 66% ⬇

혈전증 치료제

Disgren®

Dual mechanism
- Total PAF inhibitor (COX 1, ADP, EP, collagen)
- Increase of cAMP

Additional effect
- NO increase
- Neuroprotection

혈전증 예방 및 치료의 뛰어난 효과!

- TxA_2 억제 및 c-AMP 증가로 우수한 항혈전효과를 나타냅니다.
- NF-kB 억제로 neuroprotection 작용을 나타냅니다.
- NO에 의한 혈관 확장 및 심장보호 효과를 나타냅니다.
- ASA와 비교시 출혈성 합병증이 없어 장기간 복용시 안전합니다.
- 혈액계 부작용, 간독성, 두통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References
1) J.M Cruz-Fernández et al. Eur Heart J 2000;21:457-465 2) Matias-Guiu et al. Stroke. 2003;34:840-848
3) A. Culebras et al. Neurology 2004;62:1073-1080

좋은 치료제, 넘치는 건강
명인제약(주)
www.myunginph.co.kr

Newsletter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대한신경과학회보

NO.79 2009.JANUARY

발행인 | 이 광 우
편집인 | 박 성 호
발행처 | 대한신경과학회
주 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1층 11호
전 화 | (02)737-6530 팩 스 | (02)737-6531 이메일 | kna@neuro.or.kr 홈페이지 | www.neuro.or.kr
디자인·인쇄 | 도서출판 씨아이알 | (02)2275-8603
발행일 | 2009. 1. 30.